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간행소	동지 회중앙부 931 노스 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Publisher Address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주필 권좌 발행도수 발행일	미 김 김 850-849 1735 음력 3월 4일 금요일	President Editor Telephone Subscription Issue No. Date	Chung Kun Lee Donald C.W. Kim 850-849 \$10.00 per year 1735 March 21, 1969: Fri.

## 미국이 중공의 군수품을 구입

### 비에트남에서 사용. 소련신문이 비난

(로스앤젤레스 3월20일 밤, 에이피) 국경무력충돌사건에 동반하여, 중공-소련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고 있을 때, 소련 유역지 소비에트가. 다시 아지는 20일, 중공은 미국이 비에트남에서 많은 군수품을 미군측에 팔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동지는 새이출신들의 기사를 전재하고, 미제7항대는 북경이 비에트남에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상아로부터 각종품자와 수송용 배를 15척 사고, 이것을 남비에트남에 보냈다고 믿고 있다고 있다.

또 중공-소련 국경 분쟁의 중심지 아만스기도 (중공 명진보트) 방면의 정세에 대해서, 소련 유역지와의 보도에 의하면, 동도부근에서 소련군용기 전차대가 맹목중인데, 정세는 현재 전방적으로 열정 아타고 한다. 한편 중공측은 중공의 전쟁준비는 진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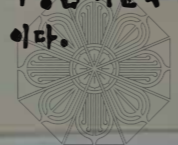
## 미국 북비에트남 대표 라오스에서 비밀교섭

### 파리 화평 회담 여전히 무진전

(파리 3월20일 밤, 에이피) 제9회 파리 확대 회담 회담은 에에다라 비남의 승수에 끝나고, 아무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남비에트남 수석대표는 "북비에트남. 민족해방전선병력 사이곤에 대해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꼭 이를 지원하고, 중산군은 대손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만 한 포섭을 하지 않는 것이 조야" 라고 경고하였다. 김 해방전선 수석대표는 "신공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한다" 는 니슨대통령의 발언을 "전쟁을 확대시키려는 것" 으로 비난, 이에 대해서 밀지 수석대표는 "미군의 지상행동도 공습도 지난 일년 동안 확대 되지 않고 있다. 전쟁 확대라고 비난할 수 이유가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20일의 회담에 앞서서, 미. 북비에트남간에 절명의 비밀 교섭이 진행중이라는 정보가 돌고 있다. 교섭의 장소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찬으로, 라미이 의회 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은 남비에트남과, 북비에트남은 해방전선과 각각 중립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믿어지고 있다. 라오스 주재의 사미반미국대사, 사이곤 주재 미측대사 반커씨는 이어 귀국중으로, 사미반대사는 오늘 사이곤에 들며, 반커씨와 같이 추남비에트남대통령을 위시하여 요일과 회담후, 워싱턴으로 출발, 반커대사도 21일 내지 22일에 출발하여, 워싱턴에서 니슨대통령과 회담한다.

## 한미 합동 연습 성공리에 종료

(서울 3월20일 밤, 에이피) 대공수좌전과 한미 연합 연습을 위해, 미국 캐롤라이나주로부터 한국에 중공 수송편 미군 낙하산부대 약 2천 5백명은 21, 22일에 한국을 출발 북캐롤라이나주의 병영에 거안중이다. (제2면에 계속)



(제 1 편에서 계속)

또 한국주류미군수뇌는, 이번의 공수작전과 군사연습은 대공성이었다고 말하고있다.

### 불안국정지대에서 또 총격전

(텔아비부 3월20일밤, 에이피) 가리티오남방, 베이산에서 20일 아람, 이스라엘군의 총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국경순찰대원 2명이 부상을입었다. 한편 국면에서 데코아, 이스라엘국면대사는 "이스라엘 점령지역내의 아랍인의 권리가 박탈되고있다" 라는 이라크의 비난에대해서 "수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잔학한 태도를 취하고있다는 말은, 정치상의 테집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송수하였다. 또 방미종의 예방, 이스라엘의상은 시카고에서 "최근의 유권결정 위반은 다만 그것 밖으로 전면전쟁과는 다르다" 라고 말하였다. 또 카이로지는 "니손은 존슨과 마찬가지로 친이승라정책을 취하고있다" 라고 논평하고, 호음속 유럽동기의 조종사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있다고 비난하였다.

### 안기라 사건을 영국 쿠내외에서 비판

(롬본 3월20일밤, 에이피) 영국의부성의 방포에의하면, 수우위, 조영국 의상은 안기라사건의 전경에대해서, 결핵부에 정세를 재점오중인데, 점도가 의 안기라사건이점이 아니고 어우에 있는나는 결핵에대해서, 의부성은 대답을 거부하였다. 안기라사건에대한 비난은 내외에서 갈라져, 국인, 아랍의카레를세우는 "안기라사건이 모대아시아의 백인정부를 타도하라" 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정신들도 안기라사건을 비판, 타임스지는 "이사건은 영국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길을 잘못 선택했음을 표시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 내년도의 국방예산 7백85억불

#### 레아드 국방장관 설명

(와싱톤 3월19일밤, 에이피) 레아드국방장관은 19일 국회의원군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닉슨 대통령의 국방예산안의 내용에대해서 설명하였는데, 그에의하면,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신외계년도의 국방지출예산총액은 785억불이 된다. 이것은 존슨대통령정권의 국방예산액보다 약 5%를 적은것이다. 그러나 동국방장관은, 이미 인가되고있는 군인증급과 기타의 추가비용을 가하면, 내년도 지출액은 840억불을 초과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정권국방예산안속에는, 닉슨대통령이 권에 결정한 안도안영격미사일 방설지개시비로서 8억불이 포함되어있다.

### 중공의 핵 위협

이에대해서 레아드국방장관은 미국은 중공의 위협과 소련의 미사일력에 대응할수있는 힘을 대비하지안으면안된다고 말하였다. 동장관은 중공의 핵 위협은 1970년대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상의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가 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남비에트남 주류미군 대량 삭감 계획 없다

비에트남문제에대해서는, 주류미군병력의 대량삭감의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말하고, 남비에트남 정부군근대화의 원호가 필요하며, 이목적때문에 1억5천6백만불의 추가지출을 요청하였다. 또 공산군의 현재의 공세에대해서 미군이 취한근지도모르는 대응책에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국방비삭감의 하나로서는 111명전략주격기의 수를 떠나메타전국방장관의 계획보다 약 60기 삭감할것이 명백이 되었다. 또 신규의 군인원급인상도 취소하기로하였다.



### 페루에서 미국어선을 포획 국회하원에 보복안도 제출

(와싱톤 3월19일밤, 에이피) 도.마스.메리 공화당하원의원 (와싱톤)은 가주 샌디에고의 어선 "케이프.앤" "산.주안"의 2척이 페루해에서 포획되어, 항구에 연행된 사실을 명백히하였다. 페루는 2백마일의 영해권을 주장하고있는데대해서, 미국은 12마일을 주장하고있다. 하원상원 어업위원장 민주당 에드워드.가팻스의원 (메리랜드)은 페루에 대적중인 미해군구축함을 반권시킬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또 민주당 타오놀.반.에이아틴의원 (가주)도 하원에서 이포위사건을 비난하고 "가주선출의 상원의원2명 파갈이, 닉슨대통령에대해서 어선반란에 필요한 처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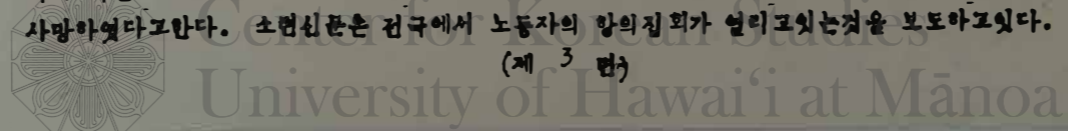
(페루.리마 19일밤, 에이피) 페루해군성은 미국어선의 포획에대해서 와싱톤으로부터의 정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있는데, 리마의 민간인축의 이야기로는, 19일 페루북부해안 23마일의 지점에서 미국어선 1척내지 2척이 포획되었다고한다.

### 민주당의 온건파가 닉슨대통령을 비판 한도란영격미사일, 비에트남 문제

(와싱톤 3월18일밤, 공동) 닉슨대통령은 한도란영격미사일계획을 대폭수정하였다고는하지만, 추진하였다는것으로 국회집보파의 중추와 충돌하였는데, 비에트남문제에도 같은 난국이 닉슨대통령에 닥치고있다. 작년의 시카고민주당대회에서 파카시민주당상원의원의원이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목적하는 온건파의 때가반상원의원은 17일, 상원본회의에서 오데간만에 비에트남연설을 하고, "닉슨정부는 아래까지 군사적고려에 지배되고있다. 닉슨대통령은 존슨전대통령과같은 과정을 밟고있다" 라고 총열히 비판하고 (1) 주남비에트남 미군의 반을 철수시키고, 나머지를 방위용이한 군사시설의 주변에 집결한다 (2) 동시에 파리회담의 정돈을 타개하는데 전력을 올린다 라고 제안하였다. 이미 민주당 온건파에서는 홀부타이드, 벨 양상원의원이 14일 비에트남정책비판을 재개하고있는데, 이들 의원의 논점에서 공통한것은, 해방전선의 윤기공세가 미군 공세의 반박이라는 점이다. 또 아래까지 유력한 민주당 온건파의 의원중, 팻가시의원, 에드워드.켄네디의원도 해방지구약의 상원총파, 닉슨대통령의 한도란영격미사일추진결정에 따라서, 미사일반대로 결속하고, 또 비에트남 비판에서도 동조하고있다고한다. 닉슨대통령은 한도란영격 미사일계획을 대폭으로 수정하였다는 점으로 반대파를 약하게한 결과, 이미 일부에서는 동계위가 결국 국회를 통과한다는 예상도 나오고있는데, 비에트남 비판을 가하면, 닉슨대통령의 국회대책은 난관을 맞이할것이다. 닉슨대통령은 15일의 국회안전보장위원회에서, 테아드국방장관의 비에트남 시찰보고를 중심으로 비에트남대책을 협의하였다. 테아드보고는 "적이나 수티나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둘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미군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않는한, 존슨전쟁은 머지않아, 닉슨전쟁으로 보일것이다." 등이라고한다. 테아드국방장관이 어떠한 결정조치를 보고 하였는지 명백치않는데, 와싱톤에서는 북쪽재개, 북진, 타오스, 간보지아 침입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강하고, 닉슨대통령의 결정은 한도란영격미사일 문제상에 곤란한것이 될것으로 보인다.

### 전주말의 중.소 충돌에서 소련병 12사망

(모스크바 18일밤, 에이피) 중.소국경 위스리강 방면에서의 전주말의 중.소 양군충돌에서 소련측의 워십한 사상자수는 명백치않는데, 신문사라의 보도를 종합하면, 적어도 12명의 소련병이 사망하였다고한다. 소련신문은 전국에서 노동자의 항의집회가 열리고있는것을 보도하고있다.



### 닉슨대통령, 금주말 중요수뇌회담

#### 반커 비에트남주재 대사등과 협의

(워싱턴 3월21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 금주말 반커주남비에트남대사, 구드레이스러 남비에트남주류미군부사령관과 만나고, 비에트남정세에 대해서 직접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동 회담에는 타자스국주장관, 깃신자대통령보좌관도 참석한다.

회담은 닉슨대통령이 주말 가주를 방문하는 데 잇서, 일요일 아침 동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어 동일오우 워싱턴 국회의기상에서도 거행된다. 또 내주에도 속행된다.

#### 미군 철퇴 문제

회담에서 취급될 중요문제중에는, 미군일부의 철퇴가능성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닉슨대통령으로서, 이것에 관한 남비에트남정부의 정치력과 군사력의 충분한 발전이 언제쯤인가에 대해서 반커대사의 견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사감률제에 대해서는 최근 현지시찰에서 돌아온 메아드주장관으로부터도 대통령에 견해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에의 보고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은 확실치 않는데, 메아드장관은 국회에서 조기철퇴의 약속이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정부측에서는 이번의 회담에서 정책변경의 절정은 있다고 하는데, 닉슨정권의 비에트남정책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또 구드레이스러장관은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령관으로 취임하기 위해 구라마에 향하는 도중이다.

#### 트르멘 전대통령을 방문

닉슨대통령부처는 21일 가주에 향하는 중, 미조리주 인디펜덴스에 들며, 트르멘전대통령을 방문, 따듯한 환영을 받았다.

#### 중공의 국련안보리 가맹을 켄네디가 제창

(뉴욕 3월21일 밤, 에이피) 에드워드 켄네디 민주당 상원내부총무는 20일, 미육.중공관계전미위원회에서 열선, "대중공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대만으로부터 미군 철퇴, 중공의 국련 안전보장리사회가맹을 추진시킨다" 라고 말하였다. 켄네디부총무는 국무회의 외교관계는 유지하고, 국무회의 국련가맹을 인정안에도 구냥두고, 중공의 도망, 비전략무역상의 장애를 철폐하고, 외교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영사관을 설치하도록 주장하였다. "중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같이, 미 외교사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일은 없다" 라고 의견을 말하였다.

#### 한국군사경계선에서 충돌

##### 도남 공수 장전외 원인 ?

(서울 3월17일 밤, 공동) 안미합동대공수연습은 17일 오전, 안미주력부대가 함악현을 야고,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동연습을 기피로 작년 12월의 주에부도승무원서방이때 조용하던 한국군사 경계선의 비무장지대부근에서 북조선군과의 충돌이 속발하고, 다시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재한국련군사령부 16일의 발표에 의하면, 15일 오후, 허무장지대에서 포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던 미병에, 북조선군이 총화물 소와, 부상자를 내었다. 이것을 구조하던 미군 메리틀러가 1기 추락, 8명이 사망하였다. 북조선측의 총화회의 원인으로 인자는 불명하다. 이에 앞서 11일, 판문점에서 제265회의 조선군사정전위원회가 열리고있는데, 비무장지대남방에 북조선측이 중기 관용등으로 공격을 가하고, 미군도 이에응전, 북조선병을 격퇴, 또 13일 오후에도 이부근에서 약시간에 걸쳐 산발적인 총격전이 있었다.

